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개선

납품업체 계약기간 보장 및 식재료 성실 납품 유도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 분야에 대한 외부청렴도를 개선하고 단위학교에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제도'를 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학교급식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그동안 급식 공급업체의 민원내용과 학교급식관계자 소통의 시간에 개선 요구된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1천만원 이하의 식재료 구매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및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으로 선정된 전월 업체와 1회 연장 재계약을 통해 2개월간의 납

품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식재료를 성실하게 납품하는 급식업체에게 1회 재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재계약 대상이 되는 1천만원 이하 급식계약 건수는 매월 약 800건으로 전체 급식계약(약 1,100건)의 72%에 해당한다.

한편, 현품설명서에 제시된 물품의 납품 불이행, 위생기준 미흡 등 불성실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했다.

2013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매월 공개경쟁 방식 계약체결에 따

라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나 식재료 공급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급식업체가 난립하게 되면서 불성실한 업체 증가, 매월 식재료 납품?검수시간 조정에 따른 마찰, 입찰시기 지연에 대한 민원 등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단위학교의 행정업무도 일부 경감될 것으로 본다."면서 "성실한 납품업체에게 2개월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단위학교에는 질 좋은 식재료가 납품되어 광주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광주 학교급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광주교육청, '축구장 가는 날' 행사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1일 관내 105개교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 5500여 명이 축구 관람을 위해 광주월드컵경기장에 간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후원하는 이번 '희망스플래시-축구장 가는 날' 행사는 시교육청과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 2012년 3월 '패밀리스포츠 관람의 날'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축구장 가는 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문화 관람 기회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 기부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특히 선생님, 친구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함으로 가족 유대감 관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광주 FC와 안산 그리너스 FC 경기를 포함해 미니축구게임, 페이스페인팅, 키다리응원요술공연, 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조인호 기자



광양중동중 댄스동아리 '얼티메이트' 청소년 재능 페스티벌서 '대상'

광양중동중학교는 9월 28일에 개최된 '제5회 청소년 재능 페스티벌'에서 댄스동아리 '얼티메이트' 학생(18명)이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광양중동중학교 댄스동아리 '얼티메이트'는 2015년에 결성되어 5년째 운영되고 있는 여학생 중심의 자율동아리이다. '얼티메이트'는 전남도교육청 예술동아리 지원과 학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점심시간과 방과후에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어 연습해 왔다.

이 동아리는 9월 8일에 개최된

'제18회 청소년축제 한마당'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장학금 15만원을 받았으며, 이번 9월 28일에 개최된 '제5회 청소년 재능 페스티벌'에서는 대상 수상이라는 결과를 거머쥐었다.

'얼티메이트' 지도교사 윤향기는 "꾸준히 연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과까지 낸 학생들에게 고마움과 기쁨"을 전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을 더욱 장려함으로써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전남도교육청, 또래상담으로 건강한 청소년문화 조성



전남도교육청이 건강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한 또래상담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또래상담 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운 이래 또래상담 운영학교 컨설팅 및 지도교사 교육을 통해 또래상담 운영학교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래상담 운영학교 컨설팅단 28명을 구성해 초중고 26개 교에 찾

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또래상담 지도교사 기본교육을 6월 간 총 223명, 7월에도 또래상담지도교사 심화교육을 2월 간 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전남 학교 중 절반이 넘는 460개 학교(초 233교 중 129교, 고 98)가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회 조직에 또래상담부를 구성하고 동아리 활

동을 통해 적극적인 학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래상담은 청소년들 중 자질이 있으면서 활동에 대한 동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훈련을 통해 또래상담자로 양성해 활동하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래상담자는 또래상담과정에 참여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급과 학교의 문화를 공동체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서로 도우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또래상담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학교 담당교사 등 총 16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또래상담 지도교사 특성화교육을 실시한다.

장성교육지원청, 초등 독서토론대회 개최

장성교육지원청이 9월 27일 대회의실과 영재교육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선발된 8개 팀 32명 참여한 가운데 독서토론대회를 실시했다.

예선대회는 8개 팀을 두 그룹 나눠 팀 별로 정한 논제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팀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토론대회에 임했다. 특히, 입론 발표에 이어 5분 동안 팀별로 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에는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론 질문을 작성하면서 서로가 협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결선대회는 각 그룹에서 선발된 2팀이 토론을 진행했다. 결선대회 논제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장성군지부'에서 제시해 팀별, 개인별 역량을 겨뤘다. 결국 이번 초등 독서토론대회의 우승은 사창초등학교 '네트워크' 팀이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규모학교 지도교사는 "5~6학년 학생 수가 적어 대표를 선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당당히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대회에 참가하기를 잘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쉽고 즐겁게 토론을 하는 교실수업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숙 교육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독서토론대회를 위해 지도해 주신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즐기면서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제석초, '나라사랑 인물강좌' 실시



광주제석초등학교가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3학년~6학년(420명)을 대상으로 광주국학원과 연계한 개천절 및 한글날 계기 교육 '나라사랑 인물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나라사랑 인물강좌'는 '나는

자랑스런 大韓民國人입니다'를 주제로 광주국학원에서 연구하는 한민족 고유의 역사, 문화, 철학 등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한글, 무궁화, 아리랑 등)을 역사 위인의 삶을 통해 흥익의 정신을 살펴보고 개인과 국가의 자긍심을 키워주며 국경일 속에 숨은 정신과 연관된 위인의 삶을 통해 참된 삶의 롤모델을 제시한다.

광주제석초 학생들은 학년, 반별로 80분간 진행된 수업으로 2~3명의 강사가 동시에 학급에 투입

되어 우리말 이야기(3,4학년): 생활 속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열굴, 한국 등의 우리말에 참 의미를 통해 바른 인성 기르기 / 국경일의 의미와 정신(5학년): 국경일의 역사를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 키우기 / 독립운동가 이야기(6학년): 김구, 윤봉길, 안중근, 홍범도 등의 삶과 정신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기준 세우기 등을 배웠다.

광주국학원 김경아 강사는 "광주제석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우리말에 담긴 바른 인성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여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